

민주, '尹, 문재인 케어 혈세 낭비 규정' 에 "국민에 의료비 폭탄 던진 것"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혈세 낭비'라고 규정하며 사실상 폐지를 선언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 던진 것" 빈대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세종시 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선언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좋은 정책을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낮게 하고 우리 사회를 한발 짝이라도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는데 OECD 최상 수준 노동시간, 병원비 부담에 고통 받는 국민의 짐을 덜기 위한 핵심 민생 정책을 뒤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라며 "전임 정부 정책이라고 무조건 부정만 한다면 국정 성공이 불가능하고 그에 따른 고통은 국민 몫이 될 것. 영원한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맡긴 권력은 잠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케어는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극소수 특권층 위한 게 아니라 다수 국민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규모가 9.2조원이고 취약계층 경감 부담이 24%, 합압제 등 중증 약제비 부담이 18.8% 감감했고 여성 난임 시술에 대한 건보 확대로 5139억원 의료비 경감이 있었다"며 "즉, 소득 재분배 역할도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최고위원은 "얼마 전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아픈 아이 안아주며 던지고 싶던 메시지는 국가가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 밝힌 게 불과 며칠 전인데 정작 윤 대통령은 포퓰리즘

운용하며 아픈 국민들의 치료비를 뺏겠다고 한다. 각자도생하라는 것이고 국민들에게 의료비 폭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역대 보장성을 강화 하지 않았다고 한 정부는 본 적이 없다. 아픈 국민 치료비 깎고, 노동 시간 늘리고 언론 탄압하고, 국민 죽을 앞에서 책임 회피 급급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도대체 누구인가"라고 꼬집었다.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 정권 지우기에 급급해 국민을 사지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온 역대 정부들의 일관된 정책 방향 위에 있다. 역대 정부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왔다"며 "이것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디까지 후퇴하겠다는 것인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라고 했다.

황 대변인은 "전체 재정 규모에서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과잉진료를 침소봉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폐기하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작은 흙집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뒤흠렸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심하다. 일부의 잘못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병원의 문턱 앞에서 되돌아가야 하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변인은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라는 목적에 급급해 국민 삶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며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재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탄소배출 감축 과제 제시

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출범

위원장 -한정수 도의원

부위원장 -서난이 도의원

제12대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익산), 부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탄소중립 특위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체자로서 전북 역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 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라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의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전라과 다량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도민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도 자치경찰 정책포럼에 김관영 도지사(가운데)와 이형규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장(왼쪽), 강환수 전북경찰청장(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범치예방 디딤 퍼포먼스를 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탄소중립 특위 위원은 권오안(완주), 김동구(군산), 김성수(고창), 김슬지(비례대표), 김정기(부안), 염영선(정읍), 윤정훈(무주), 이수진(비례대표), 진형석(전주) 의원이 함께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김경수 기자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이병철 도의원, 올해 한의혜민대상 수상

이병철 도의원(환경복지위원장, 전주)이 지난 13일 (사)대한한의사협회(협회장 홍주)로부터 2022년 한의혜민대상을 수상했다



고 14일 밝혔다.

한의사협회에 따르면 "한의의의 위상 제고와 제도권 의료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한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한한의사협회 창립 124주년과 한의신문 55주년을 맞아 2022 한의혜민대상의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김경수 기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 투자유치 유도... 특화산업으로

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연구회 주관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터럭 거리는 상황에서 새만금 산업 단지에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에 전북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연구회(대표의원 서난이(전주))가 주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과제 연구를 진행한 한 국정책학회 소속 군산대 황성원 교수는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통한 그린뉴딜 1번지 조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공동 연구자인 군산대 박재필 교수는 "현재 전남과 울산, 인천 등 광역자치체뿐만 아니라 신안군과 보령시 등 전국 각 지자체가 해상풍력 추진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도와 군산시 등 도내 지자체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서남해를 포함한 해상풍력 8.7GW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이 도내 대학에 전문인력 양성교육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풍력에너지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당부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서난이(전주 9·사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 미국의 GE, 덴마크의 베스타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타인 종살을 검토하고 있어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 '상복 터졌네'

이성국 시의원, '2022 전북 인물대상' 수상

김윤철 시의원, 전주 새마을회로부터 감사패

전주시의회 이성국 의원(효성동)은 전라북도 인물대상에 선정되어 기초의정활동 동부분 대상 수상, 전주시의회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은 이웃



이성국 의원



김윤철 의원

사랑 나눔활동에 기여한 공로로 인정받아 전주새마을회(회장 원석)로부터 감사패를 지난 13일 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추진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김 의원은 시민 위한 헌신적인 활동 이웃사랑 나눔을 인정받아 수상자 이름에

올랐다.

이성국 의원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시의원이 되기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김윤철 의원은 "여러 봉사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전주 새마을회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